



김학기 전북대 명예교수, 발전기금 2000만원 기부

전북대학교 김학기 명예교수(변호사·법학과)가 대학 발전을 위해 2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4일 전북대 발전기금재단에 따르면 최근 대학본부 4층 총장실에서 양오봉 총장 대학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김 명예교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학기 명예교수는 "우리 대학 법전원 발전과 인재 양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기부하게 됐다"며 "대학이 새로운 문화 시대에 대처할 인재 양성 요람으로 발전하길 기원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 명예교수는 지난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6년 전북대학교 교수로 임용, 법전원장을 등을 역임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 도통동, 취약계층에 빵 전달

남원시 도통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소선자)는 1일 1기구 찾아가는 소통행정을 통해 취약계층의 가정을 방문하여 천연발효빵을 이용한 영양가 좋은 빵을 전달하며 사랑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번 빵 전달은 지난달 28일 도통동 갈치미를 작은파도(대표 이은서)와 업무협약 체결로 진행된 것으로, 카페에서 직접 구운 빵을 1일 1기구 찾아가는 소통행정 가정방문 시 취약계층 가정에 지원한 것이다.

빵을 전달받은 어르신은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빵을 먹어보니 소화가 더욱 잘되는 느낌"이라며 감사를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향교동 남녀새마을지도자협, 김장김치 나눔

남원시 향교동 남녀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윤만호, 정금이)는 지난 1일, 2024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추진해 관내 취약계층 50세대에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로 5회째로 40여명의 남녀새마을지도자, 시의원 등이 참여했으며, 치솟는 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 지원받은 주민들은 정성 가득한 나눔에 감사한 마음을 표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덕과면, '솔바람 축제' 열려

남원시 덕과면 솔바람 권역 체험마을에서는 4일, 가을의 끝자락을 기념하여 제4회 솔바람 축제가 생생 마을 플러스 사업 일환으로 도비 1천만 원의 지원을 받아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축제는 솔바람 권역운영위원회(위원장 서영호)가 주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쉼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으며, 주민들은 오랜만에 한복 차림으로 마을에서 재배하는 목화를 주제로 한 공연과 전시를 통해 공동체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축제는 쇠전공연으로 라인댄스가 펼쳐졌고, 이어서 목화 민요 공연, 임직원 인사 등의 프로그램 및 참가자들은 뼈에 치기, 꽃차 만들기, 작품 전시 등 다양한 체험 활동에 참여하였다.

/남원=김기두 기자

'마이산으로 날아온 거울나라의 앤리스'

진안군, 가족 중심 테마형 관광 이벤트... 인근 도시서 찾아온 관광객들로 성황 이뤄

지난 2일 마이산북부 농촌테마공원 광장에서 진행된 이색 가족 행사인 '마이산으로 날아온 거울나라의 앤리스'가 관광객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진행됐다.

행사가 열린 당일 1,500여명의 관광객, 주민 등이 행사장을 찾았으며 그 중 70%가 타 지역에서 방문한 관광객으로 가족 중심 테마형 관광 이벤트의 좋은 사례가 됐다는 평이 이어졌다.

행사장에는 각기 다른 재밌는 분장을 하고 나타난 사람들을 문전성시를 이루고 다양한 체험과 불거리도 큰 인기를 끌었다.

전주에서 엄마와 함께 행사장을 방문한 3살 삼둥이들은 똑같은 호박의상을 입고 아장아장 걷는 모습으로 시선을 집중시켰으며 티라나사우르스 인형탈을 쓰고 나타난 소년은 이미 구슬땀을 흘리면서도 탈을 벗지 않고 행사장을 돌아다니며 분장을 뽐냈다. 그 밖에도 해리포터, 엘사, 미녀 복입운동가, 해적, 백설공주, 마술사, 앤리스와 시계토끼 등등 등장해 최근 유행하는 애니메이션 테마를 진행하며 이목을 한데 모으기도 했다.

'거울나라의 앤리스' 주무대에서는 △분장 경연대회,



△마술쇼 및 서커스가 진행돼 관중의 환호를 받으며 큰 호응을 이끌었으며, 행사장 곳곳에서 석고파입, 트럼프 병정들과의 사탕 나눔 게임 등이 이어지며 어린 이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특히 행사의 마지막 공연인 매직서커스는 리본이 비틀기로 변하고 다시 리본이 되는 마술, 헷볼 저글링 등으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소방서, 서예가 임성곤 작품 기부받아... 소방 정신 다져

무주소방서는 4일 전북한글서예협회 회장인 죽봉 임성곤 서예가로부터 소방 업무의 중요성과 마음가짐을 상징하는 서예 작품 2점을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임성곤 서예가는 2020년 초대전을 시작으로 총 7회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제19회 대한민국 서화동아리 초대전에서 초대작가상과 문화체육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는 한국서가협회 교육협력위원회와 전북한글서예협회 회장직을 맡아 한국 서예계의 중장년 인물로 자리잡고 있다.

기부된 작품 중 '유비무환(有備無患)'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다"는 의미로 소방 업무의 특성상 언제 발생할지 모를 재난 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다른 작품인 '상선약수(上善若水)'는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뜻으로 이는 물의 유연함과 포용력처럼 소방대원이 재난 현장에서 다양한 상황에 적응하고 대응하는 마음가짐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물은 물을 이기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다.

임성곤 서예가는 "소방관들이 노고와 헌신에 감사하는 마



음을 담아 이번 작품을 기부하게 되었다. 이 작품들이 소방서 내에서 많은 분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장수 서장은 "임성곤 서예가님의 귀중한 작품 기부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작품은 소방관들에게 재난 대응에 대한 새로운 다짐과 영감을 주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대 스마트팜학과 학생팀,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대상'

전북대학교 스마트팜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Green Pixel(전혜진, 양희원, 김하종) 팀이 최근 열린 제1회 호남권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대회는 SW 분야 창업 아이템 보유자와 예비 창업자를 빌려·육성하기 위해 전북대·전남대·군산대·순천대 등 4개 대학이 공동 주관한 것으로 예선을 거쳐 대학별로 3개 팀씩 총 12개 팀이 본선에서 경쟁했다.

4일 전북대에 따르면 스마트팜학과 학생팀은 '스마트 농업 시뮬레이션 교육용 게임 프로그램'이라는 창업 아이템으로 우수상을 인정받았다.

이 아이템은 스마트팜 기술을 학습하고 실현하는 데 있어 실제 농지나 온실 없이 사용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데 목표를 뒀다.

즉, 가상 현실에서 상호작용 기능과 작물의 생장 과정을 3D 모델로 시각화해 온도, 수분, 광, 습도 등 작물 재배 환



경을 직접 제어함으로써 현실의 스마트 온실에서와 같이 작물의 생리와 환경 제어 방법을 실감 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장은성 기자



태권도진흥재단, 설천면·무풍면서 농촌봉사활동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현)은 지난달 31일과 4일, 지역 농기를 찾아 일손돕기 나섰다.

10월 31일에는 설천면 일대 포도 농가를 찾아 고정 집게 제거 등을 해 포도 농사 미무리를 도왔고 4일에는 무풍면에 위치한 고추 농가를 찾아 고추 수확과 지주대 제거 등에 함께 참여한 구슬땀을 흘렸다.

봉사활동에 참여 한 이민영 주임은 "태권도진흥재단에 입사 후 처음으로 함께한 사회 공헌활동이다. 농사 경험이 없어서 서툴렀지만 어르신들을 위해 힘을 보태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특히나 맛있는 무주 포도를 먹을 수 있도록 땀 흘리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태권도진흥재단 김중현 이사장은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 지역의 현실로 다가온 어려움 극복을 위해 태권도진흥재단은 지역 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법무보호공단 전북, 산여울펜션과 업무 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황경주)는 4일 산여울펜션(대표 박자용)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보호대상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 기업체의 인력난 해소 및 지역 사회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 기업체의 인력난 해소 및 지역 사회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박자용 대표는 "저희는 자연 속에서 함께 일하며 배우는 경험이 보호대상자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산여울펜션이 더 많은 이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황경주 지부장은 "산여울펜션은 그 특성상 따뜻한 환경에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보호대상자들이 이곳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쌓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0만호 기자



동아회원권그룹, 장수군에 사랑의 버디 성금 전달

장수군은 지난 3일 장수골프리조트에서 열린 KPGA투어 동아회원권그룹 오픈 시상식에서 동아회원권그룹의 흥보 대사이인 국민기수 태진아가 최훈식 장수군수에게 '사랑의 버디'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동아회원권그룹은 지역 상생과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5번홀에서 '사랑의 버디' 훌을 운영했고 대회 기간 중 선수들이 이 훌에서 버디를 기록하면 1회당 10만원씩 적립돼 장수군 소외 계층에 기부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동아회원권그룹 관계자는 "장수군에서 의미 있는 대회를 진행하게 돼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이벤트 프로그램으로 성금을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최훈식 군수는 "취약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준 동아회원권그룹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탁해주신 성금은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나설 수 있도록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호원대, Hohohakuls konserit 개최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 교수학습개발센터가 최근 4동 1층 로비에서 2024학년도 Hohohakuls konserit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Hohohakuls konserit는 혁신교수법 성과와 우수사례 공유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센터에서는 학생 중심의 혁신교수법 적용 내용을 소개하고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교수와 학생 등 여러대학 구성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다.

혁신교수법 운영에 관한 사례 발표에서는 구두발표와 포스터발표, 사례집 전시를 실시하여 다양한 자료를 공개했으며, 학생 참여 중심의 혁신교수법 운영을 위한 자신만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례발표자 강영석 교수(스포츠무도학과)는 "동료 교수들과 혁신교수법 적용에 대한 경험을 함께 이야기하고, 미래 대학교육 혁신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행사에 참여한 김모 교수는 "혁신교수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막연히 어렵거나 느껴졌는데 이번 Hohohakuls konserit를 통해 혁신교수법을 적용하여 수업을 개선하는데 용기를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정자 교수학습개발센터장(물리치료학과 교수)은 "이번 Hohohakuls konserit를 통해 우리 대학의 혁신교수법 확산에 기여하고, 미래 대학교육 혁신에 힘을 보태는 센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이번 행사의 소감을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김제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1일 다함께돌봄센터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사단법인 글로벌투게더김제(이사장 최병철)와 위·수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탁법인을 공개 모집하고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거쳐 사단법인 글로벌투게더김제가 수탁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협약으로 사단법인 글로벌투게더김제는 향후 5년 동안 센터 시설과 운영의 전반적인 관리를 맡게 되며 아이들을 위해 다양한 학습환경을 조성해 돌봄 사각지대가 없도록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6세~12세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11월